

陶山九曲 園林과 陶山九曲詩 고찰

김 문 기*

Ⅰ 차례 Ⅰ

1. 머리말
2. 陶山九曲의 位置 고증
3. 陶山九曲의 특징과 陶山九曲詩
4.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07년 8월과 2008년 5월, 2차에 걸쳐 실시된 도산구곡 원림에 대한 학술조사와 이가순 등 6인이 지은 도산구곡시, 오가산지 등 도산구곡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하여 도산구곡의 각 지점을 고증하고, 이가순의 도산구곡시를 중심으로 도산구곡시의 작품세계를 분석, 고구하였다.

도산구곡은 낙동강을 따라 운암에서 청량까지 약 45리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 구곡 원림인데, 언제, 누가 설정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 구곡의 지점도 일정하지 않았다. 문헌조사와 2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하여 고산구곡의 설정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도산구곡의 중심 지점은 1곡이 운암, 2곡이 월천, 3곡이 오담, 4곡이 분천, 5곡이 탁영, 6곡이 천사, 7곡이 단사, 8곡이 고산, 9곡이 청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산구곡시는 이이순, 이아순, 이가순, 이종휴, 조술도, 금시술, 최동익 등이 창작하였다. 이 중, 이가순은 도산구곡시는 물론이고 퇴계구곡시, 옥산구곡시, 원명구곡시, 소백산구곡시 등 5편의 구곡시를 창작한 구곡시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도산구곡의 지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점 설정도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가순의 시를 중심으로 도산구곡시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이가순은 도산구곡의 경물을 완상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흥취에 의탁하여 도학의 뜻을 드러내었으니 이가순의 도산구곡시는 이른바 탁홍우의의 구곡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도산구곡, 도산구곡시, 도산구곡 원림, 퇴계구곡, 퇴계구곡시, 퇴계 이황, 이가순, 이야순, 이종휴, 무이구곡도가, 탁홍우의, 구곡문화, 구곡도, 구곡비평, 낙동강, 청량산

1. 머리말

조선조 유학자들은 朱子의 武夷九曲을 본받아 山水 自然이 빼어난 곳에 九曲園林을 설정하고 이를 정원 삼아 九曲詩歌를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九曲圖를 그려 완상하면서 性理의 理念을 현실에 꽃피우고 九曲批評을 전개하는 등, 이른바 九曲文化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安東 지방은 이러한 구곡문화의 發興地라 할 수 있다. 안동은 퇴계 이황을 비롯한 걸출한 유학자가 많이 배출되었고 태백산맥에서 여러 산줄기가 뻗어나고 낙동강이 가로질러 흘러가는 산자수명한 고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적·인문적 조건은 구곡원림을 경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다. 구곡원림을 설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산수가 있고 이를 경영할 수 있는 선비가 많았으니 안동의 곳곳에 구곡원림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안동에는 6곳의 구곡원림이 존재한다. 도산면에 陶山九曲과 退溪九曲이, 임하면에 臨河九曲과 臥溪九曲이, 와룡면에 栢潭九曲이, 일직면에 高山七曲이 존재한다.



안동시 구곡원림 분포도

도산구곡과 퇴계구곡은 退溪 李滉의 유적이 존재하는 명승지를 따라서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임하구곡은 半邊川에 淸溪 金進(1500~1581)의 유적을 중심으로 설정된 구곡원림이고, 와계구곡은 臥溪 金聖欽(1682~1757)이 자신의 은거지인 와계에 설정한 구곡원림이다. 와룡면의 백담구곡은 栢潭 具鳳齡(1526~1586)과 梅谷 權春蘭(1539~1617)을 배향한 栢潭書院 주위로 설정된 구곡원림이다. 일직면의 고산칠곡은 大山 李象靖(1711~1781)의 은거지 眉川 주위에 설정된 구곡이다.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¹⁾의 후속으로 본고에서는 도산구곡의 위치를

1) 김문기,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2호, 경북대학교 퇴계연

고증하고 도산구곡 원림의 특징과 도산구곡시의 작품세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陶山九曲의 位置 고증

도산구곡은 안동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낙동강에 설정된 구곡으로 길이는 약 45리이고 강폭이 넓어서 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武夷九曲에 버금가는, 큰 규모의 원림이다. 이에 비해 퇴계구곡은 퇴계 종택 앞을 흐르는 退溪川에 설정된 구곡으로 길이가 약 5리이고 시내 폭이 넓지 않아 배를 띄울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원림이다. 고산칠곡도 고산서원 앞으로 흘러가는 미천에 설정된 구곡으로 길이가 길지 않고 굽이가 많지 않아 칠곡으로 한정된 원림이다. 이처럼 안동의 구곡원림은 유학자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산수에 아홉 굽이를 설정하여 안동을 주자가 은거했던 무이구곡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안동의 선비들이 안동을 性理가 구현되는 땅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실현한 것이라 하겠다.

도산구곡은 武夷九曲을 본떠서 설정한 구곡이다. 중국의 武夷에 朱子가 있다면 조선의 陶山에 退溪가 있다는 가정에서 도산구곡은 설정되었다. 後溪 李頤淳은, 주자가 살았던 무이와 퇴계가 살았던 도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세상이 도산을 일컬어 무이라 한다. 무이는 閩越의 가운데에 있으니 회암 주 문공이 卜築한 곳이다. 도산은 東海의 모퉁이에 있으니 우리 선조 문순공이 盤旋한 곳이다. 지역이 서로 떨어짐이 1만여 리이고 시대가 서로 떨어짐이 3백여 년 인데 두 산이 서로 이름을 가지런히 하는 것은 진실로 楊桓叔이 '땅은 사람이 뛰

어나기 때문에 같아진다.'고 말한 바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땅의 승경은 또한 서로 멀지 않은 것이 있으니 두 선생이 지은 잡영을 본다면 무이의 「十二詩」와 도산의 「十八絶」이 또한 절절이 서로 부합함이 있다. 더욱이 두 산은 모두 배를 띄울 만한 승경이 있기 때문에 『도산문집』 가운데 구곡에 화운한 시가 있고 「權歌十首」에 차운한 시가 있으니 비록 이른 바 구곡의 명칭은 없지만 언외의 뜻에 망령되어 생각할 수 있는 듯한 것이 있다.²⁾

후계는 세상 사람들이 도산을 무이라 일컫는다고 하고 주자가 살았던 무이와 퇴계가 살았던 도산이 비록 거리가 1만여 리 떨어지고 시대가 5백여 년 후이지만 같은 점이 많다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는 양항숙의 말을 인용하였다. 즉 땅은 뛰어난 사람으로 인하여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이와 도산을 대상으로 지은 시, 「十二詩」와 「十八絶」이 닮은 점이 있다고 하면서 도산과 무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퇴계가 주자의 사상과 학문을 계승하였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도산은 성리가 구현된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표출한 것이다.

그런데 도산구곡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설정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퇴계 이황이 직접 설정하고 경영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퇴계의 문집과 그 제자들의 문집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퇴계는 주자의 「武夷九曲權歌」를 차운하여 구곡시를 지었지만³⁾ 도산구곡을 설정하고 이를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도산구곡에 대해서는 李頤淳(1754~1832)의 『後溪集』⁴⁾

2) “世稱陶山爲武夷 夫武夷在閩越之中 而晦菴朱文公之所卜築也 陶山在東海之隅 而吾祖文純公之所盤旋也 地之相去 萬有餘里 世之相後 五百餘歲 而二山之相與齊名者 政以楊恒叔所云地因人勝同故也 然其地之勝 亦有不相遠者 以二先生所著雜詠觀之 武夷之十二詩 陶山之十八絶 亦有節節相符 而况二山皆有可舟之勝 故陶山集中 有和九曲詩 有次權歌十首詩 則其於七臺三曲之間 雖無所謂九曲名稱 而言外之意 有若可以妄想乎”(『後溪集』 卷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3) 『退溪先生文集』 卷1, 「詩」, 〈間居讀武夷志次九曲權歌韻十首〉

에서 그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내가 보건대 청량에서 운암까지 45리 사이에 명승지가 많은데 도산이 그 가운데 자리하여 상하를 관할하며 한 동천을 만든다. 시험 삼아 그 굽이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곳을 무이구곡(武夷九曲)의 예를 따라 나누면 운암이 제1곡이 되고, 비암이 제2곡이 되고, 월천이 제3곡이 되고, 분천이 제4곡이 되고 탁영담이 제5곡에 있으니 이것은 도산서당이 있는 곳이다. 제6곡은 천사이고, 제7곡은 단사이고, 제8곡은 고산이고, 제9곡은 청량이니 굽이굽이 모두 선생의 題品과 吟賞이 미친 곳이다.⁵⁾

후계는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아홉 굽이를 자신이 직접 설정하였다. 후계는 도산구곡의 아홉굽이를 제1곡 雲巖, 제2곡 鼻巖, 제3곡 月川,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이라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산구곡의 설정은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산구곡시도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많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眞城 李氏의 家學을 계승하려 했던 후손들에 의하여 많이 지어졌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後溪 李頤淳(1754~1832), 廣瀨 李野淳(1755~1831), 霞溪 李家淳(1768~1844)이다. 후계 이어순은 자신의 선조인 퇴계 이황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도산구곡의 정확한 위치를 서술한 서문과 구곡시를 남겼고, 광희 이야순은 도산구곡을 대상으로 한 구곡시를 지어서 당시의 문인들이 차운하는 전범을 만들었으며, 하계 이가순은 晦齋, 退溪, 寒

4) 『後溪集』은 조선 후기 학자 李頤淳(1754~1832)의 시문집으로 1840년(헌종 6)에 간행되었다.

5) “余觀 夫洛川之水 自淸涼至雲巖 四十五里之間 多有名區勝境 而陶山居其中 能管領上下 爲一洞天矣 試就其成曲而最勝者 依武夷九曲之例而分之 雲巖爲第一曲 鼻巖爲第二曲 月川爲第三曲 汾川爲第四曲 濯纓潭在第五曲 是陶山書堂之所在 其六川沙 其七丹砂 其八孤山 其九淸涼 曲曲 皆先生題品吟賞之所及也”(『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並序〕〉)

岡 등의 유적지를 몸소 유람하고 구곡시를 지어서 영남을 성리가 구현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 밖에李宗休, 趙述道, 琴詩述, 崔東翼 등도 도산 구곡시를 지은 바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도산구곡을 대상으로 읊은 구곡시는 다음과 같다.

- 李頤淳(1754~183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⁶⁾
- 李野淳(1755~1831), 『次武夷九曲棹歌韻十首』⁷⁾
- 李家淳(1754~1832), 『陶山九曲』⁸⁾
- 李宗休(1761~1832), 『擬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⁹⁾
- 趙述道(1729~1803),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¹⁰⁾
- 琴詩述(1783~1851), 『謹次廣瀨李丈陶山九曲韻』¹¹⁾
- 崔東翼(1868~1912), 『擬陶山九曲用武夷櫂歌韻』¹²⁾

이상과 같이 도산구곡을 대상으로 읊은 도산구곡시를 살펴보면 도산구곡의 아홉 굽이 지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이순을 비롯한 도산구곡시 작자들이 읊은 도산구곡의 아홉 굽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李頤淳—제1곡 雲巖, 제2곡 鼻巖, 제3곡 月川,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 李野淳—제1곡 雲巖寺, 제2곡 月川, 제3곡 鰲潭,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 李家淳—제1곡 雲巖, 제2곡 鰲潭, 제3곡 月川,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6) 『後溪集』 卷2, 「詩」.
 7) 『廣瀨文集』 卷, 「詩」.
 8) 『霞溪文集』 卷3, 「詩」.
 9) 『下庵文集』 卷2, 「詩」.
 10) 『晚谷集』 卷2, 「詩」.
 11) 『梅村集』 卷2, 「詩」.
 12) 『晴溪集』 卷2, 「詩」.

-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 李宗休—제1곡 雲巖寺, 제2곡 月川, 제3곡 鰲潭,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川砂,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 趙述道—제1곡 月川, 제2곡 鰲潭, 제3곡 汾川, 제4곡 石礪, 제5곡 濯纓
제6곡 鏡潭, 제7곡 廣瀨, 제8곡 川砂, 제9곡 丹砂
 - 琴詩述—제1곡 月川, 제2곡 鰲潭, 제3곡 汾川, 제4곡 石礪, 제5곡 濯纓
제6곡 鏡潭, 제7곡 廣瀨, 제8곡 川砂, 제9곡 丹砂
 - 崔東翼—제1곡 雲散甲, 제2곡 日戶, 제3곡 鰲潭, 제4곡 汾川, 제5곡 濯纓潭,
제6곡 月潤, 제7곡 丹砂, 제8곡 孤山, 제9곡 淸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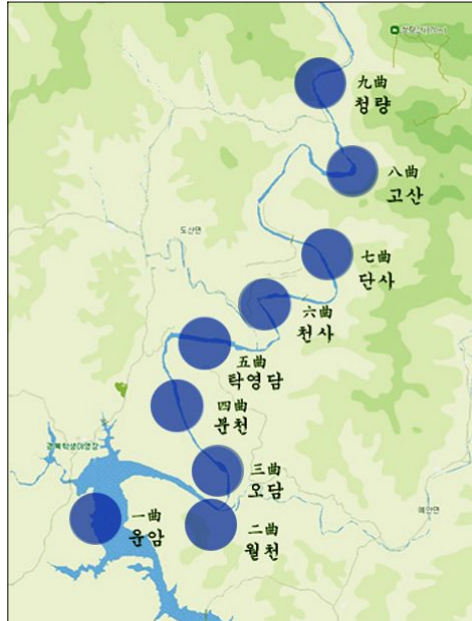
위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이이순, 이아순, 이가순 등 퇴계 후손들이 설정한 도산구곡의 명칭은 대동소이 하고 최동익의 경우, 도산구곡 전체 범위는 이들과 비슷하지만 제1, 2곡과 6곡을 새로 설정하였다. 최술도와 금시술은 광래 이아순의 도산구곡운을 차운하여 지은 연유로 廣瀨가 살던 곳을 제7곡으로 설정한 점과 도산구곡의 전체 범위를 월천부터 단사까지 축소하여 설정한 점이 다르다. 이로 볼 때, 도산구곡은 퇴계에 의하여 설정된 구곡원림이 아니라 후인들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설정되고 경영된 구곡원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가산지』¹³⁾에는 “청량에서 운암까지가 구곡이 된다”고 하고 도산구곡의 지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명종 병인년(1566) 임금이 도산을 그리기를 명하고, 그 후 영조 계축년(1733) 정조 임자년(1792) 또 그림을 그려서 올려라 명하니, 도산을 그린 것이 청량에서 운암까지 구곡이 된다. 삼가 이 화본에 의거하여 청량의 여러 시를 먼저 읽고 도산의 여러 시를 총체적으로 묶어서 청량에서 도산까지 도산에서 운암까지 길을 따라 지은 시를 하나하나 갖추어 기록해 한 구역의 산천을 총괄한다. [구곡은 1곡이 운암, 2곡이 월천, 3곡이 오담, 4곡이 분천, 5곡이 탁영, 6곡이 천사, 7곡이 단사, 8곡이 고산, 9곡이 청량이다.]¹⁴⁾

13) 『吾家山誌』는 鳳岡 李晩興(1861~1904)가 퇴계 李滉에 의하여 吾家山이라 명명된 바 있는 청량산과 관련된 이황의 시문 등을 모은 책이다. 일명 『淸涼山誌』라 불린다.

『吾家山誌』는 정조에게 그려 올린 도산서원 그림에 의거하여 아홉 굽이를 설정하고 각 곡의 경물을 대상으로 읊은 퇴계 선생의 시들을 총괄해 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가산지』를 엮을 때, 퇴계의 시를 도산구곡을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도산구곡시를 참고하고 당시 안동 사림의 견해를 종합하여 도산구곡을 설정했음을 짐작케 한다. 『오가산지』에서는 도산구곡의 1곡이 雲巖, 2곡이 月川, 3곡이



도산구곡의 위치도

鰲潭, 4곡이 汾川, 5곡이 濯纓, 6곡이 川砂, 7곡이 丹砂, 8곡이 孤山, 9곡이 淸涼이라고 분명히 범례에서 밝히고 있고, 이러한 도산구곡의 지점 설정은 이이순, 이야순 등이 설정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특히 이기순이 설정한 도산구곡의 지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퇴계의 가학을 계승한 퇴계 직손일 뿐만 아니라 이기순은 陶山九曲詩는 물론이고 退溪九曲詩, 玉山九曲詩, 源明九曲詩, 小白山九曲詩 등 5편의 구곡시를 창작한 구곡시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청량산의 한시문 등이 총체적으로 집대성된 『오가산지』에 기록된 도산구곡의 각 지점이 조선조 후기 이후, 말엽에 안동 유

14) “明宗丙寅 上命畫陶山 其後英廟癸丑正廟壬子 亦命畫以進 其畫陶山也 自淸涼至雲巖爲九曲 謹依是本 先載淸涼諸詠 總結陶山諸什 而自淸涼至陶山 自陶山至雲巖 歷路題品一一備錄 以統一區山川〔九曲 一雲巖曲 二月川曲 三鰲潭曲 四汾川曲 五濯纓曲 六川砂曲 七丹砂曲 八孤山曲 九淸涼曲〕”(『吾家山誌』 「凡例」)

림들이 가졌던 공통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여름과 금년 봄, 2차에 걸친 학술조사¹⁵⁾에서도 이기순의 도산구곡시와 『오가산지』에 수록된 도산구곡의 지점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고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가산지』에 수록된 도산구곡의 지점을 중심으로 도산구곡의 원림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기순의 도산구곡시를 중심으로 도산구곡시의 작품세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3. 陶山九曲의 특징과 陶山九曲詩

1) 제1곡 雲巖

도산구곡 제1곡은 雲巖이다. 운암은 지금 안동댐 안에 수몰되어 전경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물에 잠긴 운암 굽이의 산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운암은 이 굽이에 雲巖寺가 있어서 이름한 것으로 보인다. 광희이아순의 「도산구곡시」를 살펴보면 제1곡이 운암사이니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오가산지』를 보면 “『고증』에 예안현 남쪽 5리에 있으니 곧 도산구곡의 제1곡이다”¹⁶⁾ 하였고 후계 이이순은, “운암은 도산 남쪽 15리에 있는데 곧 한 경계의 水口이다”¹⁷⁾ 하였다. 이 두 기록을 통해 볼 때 도산구곡 제1곡 운암은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일대이다.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는 일명 ‘외내’라고 하는 君子里이다. 5~600년 전에 光山 金氏 金孝盧가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인데, 後彫堂 金富弼(1516~

15) 도산구곡에 대한 제1차 학술조사는 2007년 8월 21~22일에, 제2차 학술조사는 2008년 5월 11~22일에 실시되었다.

16) “雲巖寺 攷證云 在禮安縣南五里 卽陶山九曲之一” (『吾家山誌』 卷1)

17) “雲巖在陶山南十五里 卽一境水口也”(『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1577), 挹淸亭 金富儀(1525~1582), 山南 金富仁(1512~1584), 養正堂 金富信(1523~1566), 雪月堂 金富倫(1531~1598), 日休堂 琴應夾(1526~1586), 勉進齋 琴應壘(1540~1616) 등 당대의 도학군자를 배출하였다. 당시 안동 부사였던 寒岡 鄭述 선생이 “오천 한 마을에는 군자 아닌 사람이 없다”¹⁸⁾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宣城誌』에 기록되어 있다. 마을 이름을 군자리라 한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오가산지후지」를 살펴보면 운암의 굽이를 상상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청량에서 온 산이 여기[오담-필자주]에 이르러 못에 임해 터를 이루며 깊고도 넓으니 역동서원이 있는 곳이다. 또 남쪽으로 1리쯤 흘러드니 風月潭이라 한다. 또 서쪽으로 굽어 남쪽으로 15리를 흐르는데 빙 두른 산세는 어금니가 서로 지탱한 듯하니 雲巖曲이 이곳이다.¹⁹⁾

鰲潭의 굽이에는 易東書院이 있는데 여기서 1리쯤 남쪽으로 風月潭이 있고 다시 서쪽으로 굽었다가 남쪽으로 15리쯤 되는 곳에 운암이 있다고 하였다. 제3곡 오담과 그 곁에 있던 역동서원으로부터 16리 정도 떨어진 하류에 운암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一曲巖雲繞壑船 | 일곡이라 바위 구름 골짜기 배를 두르니 |
| 小庵西出見烏川 | 작은 암자 서쪽으로 나가서 오천을 보네 |
| 當年講易論文地 | 그 해 역을 강론하고 문을 논의하던 땅에 |
| 山菊江楓鎖暝煙 | 산 국화 강 단풍이 어두운 안개에 잠겼네 ²⁰⁾ |
| 雲巖曲 | |

18) 『宣城誌』, 「烏川」.

19) “山之自清涼來者 至此而臨潭成址 奧衍宏敞 易東書院 所在也 又南注一里許 曰風月潭 又西折南流十五里 山勢周匝 如牙齶相持 雲巖曲 是也”(『吾家山誌』 「吾家山誌後識」)

20) 『霞溪文集』 卷3, 「詩」, 〈陶山九曲〉 一曲詩.

하계는 도산구곡 제1곡에서 운암사에서 유람을 시작하였다. 바위 구름이 골짜기 배를 두른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가 운암사이다. 그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오천을 바라보면서 퇴계가 김부필, 김부의, 김부륜, 금응협, 조목 등과 함께 운암사에 거닐면서 시를 짓고, 주역을 논하며 문장을 토론하던 당시를 회상하였다.²¹⁾ 그러나 지금은 어두운 안개에 잠겼다고 함으로써 퇴계와 후조당 등 당시 도학자들의 학문을 높이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우의하였다.

2) 제2곡 月川

도산구곡 제2곡은 월천이다.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인 月川 趙穆(1524~1606)이 태어난 마을인데 당시 마을 이름이 월천이었다. 후인들이 월천 조목의 호를 피하기 위하여 '월애', '달애', '다래'라 불렀다. 월천 마을은 예안의 宣城縣에 속했던 유서 깊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안동댐 건설 이후 마을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현재는 호수를 사이에 두고 예안면 부포와 마주보고 있다. 『선성지』를 살펴보면 월천 마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마을은 현 동쪽 7리에 있다. 龍頭와 靈芝 두 산이 이어져 내려와 서로 솟아 芙蓉峯이 되었으며, 그 아래에 마을이 있으니 바로 月川이다. 옛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서 초목이 무성하고 원숭이와 토끼들이 서로 떼지어 다녔다. 이 때문에 옛부터 세속에서 마을 이름을 전하기를 '率乃'라고 하였다. 천지 간에 아끼고 비밀로 한 지역으로 주인이 없이 던져진 지 이미 오래 되었을 때에 同知公 權受益(1452~1544)이 浮羅村[지금은 부포]에서 태어나 매번 이곳의 빼어난 경치를 보고서 이곳으로 옮겨 살려는 생각이 있었다. 홍치 갑인년(1494)에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터를 닦아서 처음 살았는데 옛 이름인 '솔내'를 고쳐 '月川'이라고 하였

21) “雲巖在陶山南十五里 卽一境水口也 先生 與後彫 把清 雪月 日休 勉進 月川 諸公 遊雲巖寺 詩有論易討文之句”(後溪集 卷二,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並序, 第一雲巖曲註)

다. 동지공의 외손인 조목이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월천으로 호를 삼았다. 선생은 또한 '帶羅'라고 하였는데 浮羅와 짝해서 부른 것이다. 마을 뒤쪽에 부용봉이 있고 앞으로는 낙천洛川을 마주보고 있어서 참으로 예안의 특별한 땅이 되었다. 돌아가신 퇴계 선생께서 남과 만나서 우리 고을 산수의 기이함에 말이 미치면 반드시 월천으로써 으뜸으로 치고서 곳곳마다 시를 남기셨다.²²⁾

월천 마을은 용두산과 영지산이 만나서 이룬 부용봉 아래에 자리 잡은 마을로서 앞으로 낙천이 굽어 돌며 흐른다. 사람이 살지 않던 황무지 월천을 유서 깊은 마을로 만든 이는 동지공 권수익과 월천 조목이다. 동지공 권수익은 월천이라는 마을 이름을 지었고, 월천 조목은 마을 이름을 호로 삼아서 월천의 이름을 만세에 전하고 있다. 『오가산지』와 『후계집』에도 월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나타난다.

월천은 부용봉 아래에 있다.[부용봉은 도산 5리쯤에 있다. 곧 서취병의 서쪽이 동으로 가서 동취병과 형세를 합하는 곳이다.]²³⁾

월천은 비암 동쪽 8, 9리 부용봉 아래에 있다. 선생이 강산 제일이라 칭하였다. 부용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어 '계당의 달이 희니 천당이 희네'라고 하였다.²⁴⁾

월천은 행정구역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동부리이다. 구한말에는 예안군 읍내면에 속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만촌동, 관저동, 교촌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예안읍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동부리라 하고 안동군 예안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73년에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의 일

22) 『宣城誌』, 「月川」.

23) “月川在芙蓉峯下〔芙蓉峰 在陶山五里許 卽西翠屏之西者 東而與東翠屏合勢處也〕”(『吾家山誌』 卷1)

24) “月川 在鼻巖東八九里芙蓉峯下 先生 稱爲江山第一 次芙蓉作詩曰 溪堂月白川堂白”(『後溪集』 卷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부가 수몰되자 나머지 일부를 1974년에 도산면에 편입시켰으며,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이 폐합될 때,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동부리는 현재 동부 1리와 동부 2리로 나누어 40여 호가 살고 있는데 새터, 괴네, 송터 마을은 동부 1리에 속하며, 월천 마을은 동부 2리에 속한다. 마을에는 월천이 1539년(중종 34)에 건립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수학했던 月川書堂이 있고, 월천의 셋째 동생인 趙禎(1551~1633)의 謙齋가 있다.

| | |
|---------|--------------------------------------|
| 二曲芙蓉第幾峯 | 이곡이라 부용봉은 몇 번째 봉우리인가 |
| 林中一鳥謝塵容 | 숲 속에 한 새는 세속의 모습을 사양하네 |
| 滿川風月同心賞 | 시내에 가득한 풍월은 심상을 함께 하나 |
| 浩劫溪山隔萬重 | 오랜 세월 시내 산이 만 겹이나 막혔네 ²⁵⁾ |
| 月川曲 | |

하계 이가순은 도산구곡 제2곡 월천에 이르러 마을 뒤로 솟은 부용봉을 바라보았다. 월천 마을 뒷산 부용봉은 이 굽이를 상징하는 봉우리이다. 낙동강 물길을 거슬러 오르다 부용봉이 보이면 대부분의 유람객은 월천에 이르렀다 생각하였다. 그만큼 부용봉은 월천의 굽이를 대표하는 봉우리이기 때문이다. 하계는 월천 숲의 새를 보며 세속의 모습이 아니라 하였다. 이것은 하계가 월천의 굽이를 단순히 혼탁한 속세의 공간이 아니라 人慾이 존재하지 않는 淸淨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퇴계가 여러 사람들과 월천정에서 더위를 피하고 풍월담에 배를 띄워 노닐었던 자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²⁶⁾ 그래서 하계는 시내에 가득한 풍월이 心賞을 함께 한다 하였다. 지금 시내 위에 비치는 달과 부는 바람은 퇴계가 함께 했던 달과 바람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하계는 월천의 시내 산이 오랜 세월 막혔다고

25)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二曲詩

26) “甲子六月望日 陪郭明府 與諸人 避暑月川亭 因泛風月潭”(『吾家山誌』 卷1)

하였다. 이는 월천 조목이 퇴계의 제자로서 큰일을 하였지만 퇴계의 학맥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3) 제3곡 鰲潭

도산구곡 제3곡은 오담인데 현재는 안동댐에 수몰되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위치와 모습을 추정할 수 있다. 오담은 분천 하류에 있었다.²⁷⁾ 이를 통해 볼 때 오담은 분천의 하류에 형성된 못으로 추정된다. 즉 도산구곡 제4곡인 분천에서 흘러오는 물이 굽이 돌며 만들어진 못으로 짐작된다. 『오가산지』에 오담의 위치를 언급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오담은 도산 아래 5리쯤에 있다. 「연보」에 “무오년 4월에 선생이 오담에 노닐며 우 재주를 위하여 그 위에 서원을 세우고자 그 땅을 샀다.” 하였다.²⁸⁾

역동서원. 「연보」에 “경오년 7월 선생이 역동서원에 이르러 여러 생도들과 더불어 『심경』을 강론했고, 8월에 역동서원이 낙성되자 갔다.” 하였다. 오담가에 있다.²⁹⁾

오담은 도산 아래 5리쯤에 있었다. 『오가산지』의 기록을 근거로 오담의 위치를 추정하면, 오담은 예안면 부포리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오담 옆에 역동서원이 있었다. 역동서원은 1570년(선조 3) 유림의 뜻을 모아 禹倬(1263~1342)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서원이니 유자가 숭앙하는 공간

27) “鰲潭在汾川下流”(『吾家山誌』 『吾家山誌後識』)

28) “鰲潭 在陶山下五里許 年譜 戊午四月 先生 遊鰲潭 爲禹祭酒 欲建書院於其上 相其地”(『吾家山誌』 卷1)

29) “易東書院 年譜 庚午七月 先生至易東書院 與諸生 講心經 八月 易東書院 落成往赴 在鰲潭上”(『吾家山誌』 卷1)

이고, 도산구곡을 유람하려 하는 유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역동서원이 있던 오담이 도산구곡 제3곡으로 자연스레 설정된 것 같다.

역동서원은 1683년(숙종 9) '易東'으로 사액이 내려졌으나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조치로 훼손되었다. 서원의 옛터는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었으나 1969년 송천동으로 이전, 복원되었다. 그 후, 송천동이 안동대학교 교지로 편입되면서 1992년부터 안동대학교가 위임 관리하고 있다. 서원에는 우탁의 위패를 모신 尙賢祠, 明教堂, 典祀廳, 藏書閣, 동재와 서재, 주소 등이 있다.

퇴계의 문인들이 이 굽이를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퇴계의 자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퇴계는 무오년(1558) 4월에 오담에 노닐면서 文僖公 禹倬을 위하여 그 가에 서원을 세우려고 땅을 살렸고 퇴계의 이러한 노력으로 오담의 굽이에 역동서원이 건립될 수 있었다. 퇴계는 경오년(1570) 7월에 역동서원에 이르러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 『心經』을 강론하였고, 8월에 역동서원이 낙성되자 다시 들렀다.³⁰⁾ 이러한 사실은 18, 19세기 영남 사림에게 오담을 의미 있는 굽이로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 | |
|---------|--------------------------------------|
| 三曲鰲潭客問船 | 삼곡이라 오담에서 객이 배를 물으니 |
| 文僖尸祝自庚年 | 문희공을 제향함이 경인년에 시작했네 |
| 燭幽一鑑神襟契 | 깊은 곳 비추는 한 치 거울 신금과 맞으니 |
| 講樹氷輪尙入襟 | 강론하던 나무의 달빛이 오히려 어여쁘네 ³¹⁾ |
| 鰲潭曲 | |

하계 이가순은 오담에 이르러 후인들이 역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역동

30) “易東書院 年譜 庚午七月 先生至易東書院 與諸生 講心經 八月 易東書院 落成往赴”(『吾家山誌』 卷1)

31)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三曲詩

서원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터럭의 더러움도 없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역동이 지향했던 경지이고 퇴계를 비롯한 후인들이 역동 선생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었다. 속세에 살면서 인욕에 물들지 않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계는 이 굽이에 이르러 한 치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 인간 세상의 부귀가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비치는 달이 어여쁘게 보였다. 이는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였다.

이 산을 노니는 사람은 운암곡의 풍월담에 배를 띄우고 오담과 탁영담 굽이에 노를 저어 올라가서 도산의 상덕사를 배알하고, 곧바로 거슬러 올라서 굽이굽이 기이한 경관을 관람하고, 12봉우리 정상에 올라 임하면 시야가 확 트이고 마음이 시원하다. 무릇 이 경계의 높은 것, 깊은 것, 흐르는 것, 솟은 것, 동물, 식물, 하늘을 나는 것, 물에 잠영하는 것이 한 이치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곧 어찌 다만 아득한 구름 안개만이 뜻에 맞고 눈을 기쁘게 할 따름이겠는가?³²⁾

도산구곡을 유람하는 사람들은 오담을 걸어서 가기보다 배를 타고 갔다. 도산구곡 제1곡 운암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어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풍월담을 거쳐 오담에 이르렀다. 배를 타고 보는 경치가 좋아서 그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遊者들이 배를 타고 오담에 이른 것 같다. 유자들은 오담에서 다시 배를 저어 도산서원 앞의 탁영담에 이르러 배를 매어 놓고 도산서원에 올라가 상덕사를 배알하였다. 배알을 마친 유자들은 다시 배에 올라 도산구곡을 거슬러 오르며 아름다운 경관을 관람하고 제9곡인 청량에 이르렀

32) “遊是山者 泛舟於雲巖風月之潭 溯棹於鰲潭濯纓之曲 拜謁乎陶山尙德祠 又溯流直上 觀盡曲曲高絕 登臨乎十二峯顛 眼界豁然 胸次灑然 凡斯境之高者 深者流者峙者動植者飛潛者 莫非一理之昭著 則是奚但爲縹緲雲烟適意悅目而已也耶(『吾家山誌』「吾家山誌後識」)

다. 물길을 따라서 도산구곡을 유람하는 유자에게 오담은 잠시 머물러 쉬었던 공간이 아니었을까 한다.

4) 제4곡 汾川

도산구곡 제4곡은 분천이다. 제3곡 오담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오르면 분천에 이른다. 현재는 안동댐에 수몰되어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안동댐의 수면이 낮아지면 수몰 이전 분천의 자취를 어렵듯이 확인할 수 있다. 분천은 龔巖 李賢輔(1467~1555)의 자취가 남아 있는 굽이이다. 퇴계 이황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농암은 이 굽이에서 태어나 여생을 마쳤다. 특히 그가 개작한 「漁父歌」는 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퇴계의 「陶山十二曲」 창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학적·역사적 자취가 남아 있는 분천은 도산구곡의 한 굽이로 설정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후계집』에 분천의 위치와 농암에 대한 기록이 짙막하게 나타나 있다.

분천은 월천 서북 5리쯤에 있다. 농암 선생 亭館이 여기에 있다. 농암이 만년에 물러나 아이로 하여금 「어부사」를 부르게 하니 선생이 농암을 일컬어 老仙伯이라 하였다.³³⁾

분천은 월천에서 서북으로 5리쯤에 있다. 위의 글을 통해 볼 때, 월천에서 오담을 지나서 만나는 첫 굽이가 분천이다. 그 곳은 농암의 亭館이 있는 곳으로 농암이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아이들에게 「어부사」를 부르게 하여 老仙伯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굽이이다. 즉 농암의 자취가 온전히 남아 있는 공간이다. 이 굽이는 농암 이현보, 퇴계 이황으로 이어지는 영

33) “汾川在月川西北五里許 龔巖先生亭館在焉 龔巖晚退 使侍兒歌漁父辭 先生討稱龔巖爲老仙伯”(『後溪集』 卷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남 학맥과 영남 가단에 중요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분천곡은 현재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이다. 분천리는 구한말에는 예안군 의동면 지역으로 부내, 분천, 분강촌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합 시에 분천리라 하여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되었다.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면서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분천리는 원래 영천 이씨 집성촌으로, 입향조는 고려 말기 軍器寺 小尹을 지낸 李軒이다. 공은 어지러운 세상일을 염려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영천을 떠나, 泉石이 아름다운 汾江 굽이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소운공이 동네를 둘러보니 낙동강이 밝게 흐르므로 부내라 불렀다고 하며, 한자로는 汾川이라 하였다. 이 마을은 소운공이 약 600년 전에 입향한 이후로 농암 이현보를 비롯하여 수많은 인물이 대를 이어 배출된 유서 깊은 마을이었으나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구가 되어 현재 송티와 넘티 2개의 마을만 남아 있으며 20여 호의 가구가 살고 있을 뿐이다.

청량산에서 도산서원 앞을 지나 분천리 앞으로 굽이쳐 흐르는 물이 낙동강이다. 안동댐이 들어서기 전에는 분천리 앞에서 낙동강 강물이 두 줄기로 갈라져 汾江, 分水, 分川 등으로 불렸다. 분천의 기슭 가운데 ‘龕巖’과 ‘簞巖’이라 하는 바위가 있었는데 지금도 댐 수위가 낮아지면 그 모습을 드러내어 분천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귀먹바위[耳塞巖]라고 하는 ‘농암’은 분천의 기슭에 있는데 이현보가 명명하였다. 『농암집龕巖集』의 「愛日堂重新記」에는 바위의 유래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바위는 원래 이름이 없었고 우리말로 ‘귀먹바위’라 전해진다. 바위 앞에 큰 시냇가 임하고 위에 급한 여울이 있어서 여울 소리가 서로 향응하여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니 ‘귀먹바위’ 이름은 그 반드시 이 때문이다. 은둔하여 출척에 대하여 듣지 않는 자의 거처로 마땅하니 이로 인해 이 바위를 ‘농암’이라 하고 늙은이가 자호로 삼았다.³⁴⁾

분천 가운데는 점암이라 하는 바위가 있는데 농암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 분천리에 은거할 때에 퇴계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초빙하여 배를 띄우고 노닐었던 곳이다. 『농암집』의 「애일당중신기」를 보면 “여기부터 물살이 점점 느려 깊고 맑다. 농암 아래에 이르면 넓고 가득하게 퍼지고 쌓여 조그만 배를 띄우고 노를 저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汾江’이라 한다. 강 가운데는 반석이 있어 마치 비단자리와 같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점암’이라 한다.”³⁵⁾고 하였다.

| | |
|---------|-----------------------------------|
| 四曲清川繞象巖 | 사곡이라 맑은 시내 상암을 두르니 |
| 漁歌驚起鷺毛毳 | 어부가는 해오라기 깃털을 놀라게 하네 |
| 蟠桃江寺留清韻 | 반도의 강사에 맑은 시를 남기고 |
| 仙伯風流共一潭 | 선백의 풍류는 한 못에 함께 하네 ³⁶⁾ |
| 汾川曲 | |

하계 이가순은 분천의 맑은 내에 이르러 내를 둘러 있는 象巖을 바라보고, 그 옛날 「漁父歌」를 지어서 불렀던 농암 이현보를 생각하였다. 이 굽이는 농암의 자취가 남아 있어 하계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이었다. 아이들이 부르는 「어부가」 소리에 분천의 해오라기가 놀라서 날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농암은 벼슬에 나아가 자신의 포부를 펼친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분천의 해오라기와 벗을 하며 강호의 한가로운 삶을 살았다. 「어부가」는 농암의 이러한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노래이다. 하계는 분천의 굽이에서 「어부가」를 읊으며 살았던 농암 곧 노선백의 풍류,

34) “巖舊無名 諺傳耳塞巖 前臨大川 上有急灘 灘鳴響應 聾塞人聽 耳塞之名 其必以此 宜乎隱遯 跣涉不聞者之居 因謂之聾巖而翁自號焉”(『聾巖先生文集』 卷3, 「雜著」, 〈愛日堂重新記〉)

35) “自此波流漸緩 澄泓清澈 至聾巖下 瀾漫停蓄 扁舟可棹 是謂汾江 江心盤石 如鋪錦箇 名爲簞巖”(『聾巖先生文集雜著』 卷3, 「雜著」, 〈愛日堂重新記〉)

36)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四曲詩.

假漁翁의 삶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다. 하계는 이러한 마음을 '선백의 풍류는 한 못에 함께 하네'라는 말로 표출하였다.

5) 제5곡 濯纓潭

도산구곡 제5곡은 濯纓潭이다. 현재 탁영담은 안동댐이 담수를 시작하면서 물에 잠겨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안동댐 수면이 낮아지면 탁영담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난다 한다. 퇴계 이황은 「陶山雜詠并記」에서 탁영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시내가 東屏에서 서쪽으로 달려 산발치에 이르면 물이 넓어지고 깊어지니 몇 리 사이를 시내 따라 거슬러 오르면 깊어서 배를 운행할 수 있다. 금빛 모래와 옥 같은 조약돌이 맑고도 밝으며 푸르고 차가우니 곧 이른 바 탁영담이다.”³⁷⁾ 하였다. 퇴계의 기록을 통하여 탁영담의 모습을 상상하면, 탁영담은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로 깊은 못이었다. 탁영담 주위로 금빛 모래와 옥 같은 조약돌이 펼쳐져 있고 그 안에 흐르는 낙동강 강물은 푸른빛을 띄고 흐르기 때문에 차가운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맑은 못이었다. 강물이 푸른빛을 띄는 것은 탁영담의 깊이가 알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시 퇴계의 기록을 살펴보자.

산문 같은 것이 있는데 곡구암이라 한다. 이곳에서 동으로 몇 걸음 돌아가면 산기슭이 끊어져 바로 탁영담에 들어간다. 위는 큰 돌이 깎아지듯 서 있고 층층이 쌓인 것이 10여 장이다. 그 위에 쌓아 대를 만드니 소나무가 해를 가렸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물에는 새와 물고기가 날고 뜬다. 좌우의 취병은 그림자 움직이고 푸르름 머금어 강산의 빼어난 경치를 한번 보고 나서 천연대라 하였다. 서쪽 산기슭에 또 대를 쌓은 듯한데 이름하여 천광운영대라 하니 그 빼어난 경치는 마땅히 천연대에 못지 않다. 반타석이 탁영담 가운데에 있는데 그 형상이 반타의

37) “川自東屏而西趨 至山之趾 則演漾泓渟 沿泝數里間 深可行舟 金沙玉礫 清瑩紺寒 卽所謂濯纓潭也”(『退溪先生文集』 卷3, 「詩」, 「陶山雜詠并記」)

모양이라 배를 매고 술잔을 돌릴 수 있다. 매번 큰 비로 물이 분게 되면 더불어 가지런히 함께 들어가고, 물이 줄어들고 물결이 맑아진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다.³⁸⁾

낙동강 강물이 도산서원 앞에 이르러 한번 크게 굽어하는데 이 굽이에 탁영담이 자리한다.³⁹⁾ 그리고 탁영담 주변에는 谷口巖, 天淵臺, 天光雲影臺가, 탁영담 가운데는 盤陀石이 있다. 탁영담에 들어서면 입구에 산문 같은 바위가 있어서 퇴계가 곡구암이라 이름하고, 탁영담 동서에 깎아지른 바위가 임해 있어 천연대, 천광운영대로 이름하고, 탁영담 가운데는 반타석이 있어서 물이 불어나면 잠기고 낮아지면 드러난다고 하였다. 퇴계는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고 시를 지어 남겼으니 탁영담과 그 주위의 여러 지점은 퇴계의 자취가 남아 있지 않은 곳이 없다. 후인이 이 굽이를 도산구곡의 제5곡으로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 | |
|---------|-----------------------------------|
| 五曲盤陀水更深 | 오곡이라 반타는 물이 더욱 깊고 |
| 良岑南望入雲林 | 남으로 바라보니 간방의 메뿌리 구름 숲에 들어가네 |
| 傳觴繫纜芳塵在 | 술잔을 돌리고 닻줄 매고 방진에 있으니 |
| 誰識通泉百世心 | 그 누가 통천의 백세심을 알겠는가 ⁴⁰⁾ |

濯纓潭曲

하계 이가순은 도산구곡 제5곡 탁영담에 이르러 물이 불어나면 물에 잠기

38) “有似山門者 曰谷口巖 自此東轉數步 山麓斗斷 正控濯纓潭 上巨石削立 層累可十餘丈 築其上爲臺 松棚翳日 上天下水 羽鱗飛躍 左右翠屏 動影涵碧 江山之勝 一覽盡得 曰天淵臺 西麓亦擬築臺 而名之曰天光雲影 其勝槩當不減於天淵也 盤陀石在濯纓潭中 其狀盤陀 可以繫舟傳觴 每遇潦漲 則與齊俱入 至水落波清 然後始呈露也”(『退溪先生文集』 卷3, 「詩」, 〈陶山雜詠并記〉)

39) “其外平蕪白沙 折而西流五里 至丹砂峽 又西流三屈折 而至陶山 尙德祠下 爲濯纓潭”(許穆「清涼山記」, 〈陽川〉)

40)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五曲詩.

고 낮아지면 드러나는 반타석을 보았다. 그리고 남쪽에 간방의 멧부리가 구름숲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퇴계의 자취가 남아 있는 이 굽이에서 하계는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취를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누가 통천의 백세심을 알겠는가’ 하였다. 통천의 백세심은 퇴계의 탁영담을 읊은 시에서 한 말인데⁴¹⁾ 이는 퇴계의 학문을 그 누가 이었는가 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선조 퇴계 이황의 학문을 잇겠다는 다짐으로 들린다.

이가순은 진성 이씨의 가학을 이었다. 退溪로부터 시작된 학맥이 군기시첨정 李騫, 목사 증이조참판 李詠道, 공릉참봉 李岐, 장수도찰방 증이조참의 李希哲, 증이조참판 李穰至, 증조부 정릉참봉 증이조판서 李守約, 조부 지중추부사 李世師에 이르며 가학을 이었다. 이 가학을 아버지인 李龜書가 잇고 이를 이가순이 이었다. 진성 이씨 가학은 퇴계 학맥에서 나름대로 한 학맥을 이루었던 것이다.

하계는 약관의 나이에 향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성균관에서 수학할 때 정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는데 정조가 이가순의 풍채가 매우 크고 외모가 엄정하고 단정한 것이 여러 유생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보고 얼굴을 들라 명하고 말하기를 “용모가 좋다.”고 하였다.⁴²⁾ 정조의 남인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이가순의 뛰어난 자질로 인하여 그는 여러 벼슬자리에 올랐다. 참봉으로서 1813년 증광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1814년 통사랑으로 임명되고, 1820년 성현도찰방, 1821년 시강원설서 등을 역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가순은 진성 이씨 가학에 대한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1796년 가을 河西 金麟厚의 「陞廡疏論」이 있었다. 소론의 원본을 보니 「사단칠정설」을 끌어 인용하였는데 퇴계의 본래 뜻과 다른 것이 있었다. 여러

41) “濯纓潭在汾川東二里許 陶山書堂在其上 烟林二十六處之一 先生濯纓潭泛月詩曰 不知百世通泉後 更何人續正聲”(『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42) “上見 其風姿頎頎 儀表凝整 出諸儒中 命舉顏曰 容貌好矣”(『霞溪集』 卷12, 「行狀」)

차례 왕복하였으나 뜻이 합하지 않자 마침내 葯房의 여러 유생들과 더불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陞享日에 이르러 이가순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疏語로 물러나서 번거로운 예에 이르더라도 어찌 스스로 外人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마침내 수행하였다.⁴³⁾

그리고 이때에 퇴계의 주손이 永柔승에 제수되어 祠版을 받들고 부임하는 길에 도성을 지나니 정조가 백관에게 명하여 공손히 맞이하면서 성균관에 안치하라 하고 근신을 보내어 異數로 致祭하게 하니 그 응접이 번거롭고 많았는데 이가순이 좌우로 이를 주선하며 모두 예의에 합당하게 하니 보는 이가 모두 칭찬하였다.⁴⁴⁾고 한다. 이렇듯 진성 이씨 가학을 지키려는 이가순의 노력은 그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왔다. 도산구곡 제5곡 탁영담에서 하계는 이러한 자부심을 다시 확인하였다. 한편, 후계 이이순은 “백세토록 샘이 흘러 은미한 소리 끊기니,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마음 알 수 있을까⁴⁵⁾”하여 자신이 퇴계의 家學을 잇고자 하는 심정을 토로하였고, 광퇴 이아순도 “물 흘러 나오는 원천 있으니, 고인을 생각하며 오직 내 마음 언네”라고 하여 가학 계승을 자임하였다.

43) “丙辰秋 有河西金文靖公 陞庶疏論 見其疏 本拖引四七說 而有貳於溪門本旨 屢次往復 終不合 遂與葯房諸儒并不參論 及至陞享日 公曰 吾儕雖以疏語引退而至於禱禮 寧可自外 遂隨行”(『霞溪集』 卷12, 「行狀」)

44) “時 文純公 胄孫 除永柔令 奉祠版 赴任路 過都城 上命百官 祇迎安于成均館 遣近臣 致祭異數也 應接煩浩 而公左右周旋 曲當禮意 見者皆稱之”(『霞溪集』 卷12, 「行狀」)

45) 通泉百歲輟微響 백세 토록 샘이 흘러 은미한 소리 끊기니
更有何人知此心 다시 어떤 사람이 이 마음 알 수 있을까(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並序, 第五曲)

如斯有水源源處 이같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 있으니
思古人惟獲我心 고인을 생각함에 오직 내 마음 언네(『廣瀨文集』 卷1, 「詩」, 陶山九曲 第五曲)

6) 제6곡 川沙

도산구곡 제6곡은 천사는 제5곡 탁영담에서 배를 타고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이르는 곳이다. 후계 이이순의 기록에 의하면, 천사는 탁영담 동서 5리에 있는데 동쪽은 翠屏이고 서쪽은 紫霞塢이다. 시내 위에 일곱 대가 있고 대 위에 月瀾菴이 있다. 퇴계는 「천사곡」 시에서 “구슬 같은 무지개 마을 안고 비졌네”라 하였고, 「寓月瀾」 시에서 “산의 달이 외로운 이불을 비추니 절로 어여쁘네”라 하였다.⁴⁶⁾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이 淸凉山과 鸞芝山の 두 틈새를 뚫고 흘러가서 아홉 굽이 천하의 절경을 이루는데, 천사곡은 원천리 내살미 앞에 있는 여섯째 굽이이다.

원천리는 1895년 지방관제 개편 때는 예안군 의동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에 원촌동, 천곡동, 이곡리를 병합하여 원촌과 천곡의 이름을 따서 원천리라 하고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시켰다. 1976년 안동댐 수몰지구가 되었으며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하면서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원천리에는 원 원천 마을인 원촌 마을과 내살미 마을이 있으며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내살미는 원천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마을 앞을 흐르는 낙동강이 수려하며 넓은 강변에 쌓인 모래가 정결하고 광채가 아름답다 하여 예로부터 천사미, 내살미, 천사, 천곡이라 불렀다. 안동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마을 앞 모래 강변에 서식하는 銀魚가 별미여서 예로부터 고관들의 선사품으로 올려지기도 하였다. 예안읍지인 『宣城誌』를 보면, 教授 李賢佑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고, 그의 외손인 琴悌荀이 이어 살았다고 한다. 퇴계의 『연보』와 『언행록』을 살펴보면 천사는 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6) “川沙在瀾纓東西五里 東翠屏 西紫霞塢 川上有七臺 臺上有月瀾菴 先生 川沙曲詩曰 玉虹抱村斜 寓月瀾詩曰 自憐山月暎孤衾”(『後溪集』 卷2, 「詩」,〈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선생이 하명동 자하봉 아래에 땅을 얻어 집을 지었으나 마치지 못했다. 그리고 죽동에 옮겼는데, 또 마을이 좁고 시내가 없는 것으로 이에 계상 동암에 복거하였다.⁴⁷⁾

선생 50세(1550)에 아직 집이 없어 처음에 자하봉에 복거하고 중간에 죽동으로 옮기고 끝에 퇴계 가에 정착하였다.⁴⁸⁾

퇴계는 50세가 되도록 집이 없었는데 천사의 하명동 자하봉 아래에 처음 집을 지어 살려고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동으로 옮겨서 살았다. 그런데 이곳은 동네가 너무 협소하고 흐르는 시내가 없어서 다시 퇴계 가에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천사 가에 자리한 자하봉은 퇴계가 처음 복거한 곳이다. 광희 이야순은 자하산을 우리 집안 산이라 하고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하여 자하산을 읊은 시를 모아서 시첩을 엮었다.⁴⁹⁾ 이렇듯 천사는 퇴계 후손과 문인에게 중요한 굵이가 아닐 수 없었다.

| | |
|---------|------------------------------------|
| 六曲長虹抱玉灣 | 육곡이라 긴 무지개 옥만을 안으니 |
| 瀾臺遙望白雲關 | 월란대에서 멀리 백운관을 바라보네 |
| 紫霞西塢幽人屋 | 자하봉 서쪽 두둑은 유인의 집이니 |
| 萬卷中藏一味閑 | 만권 책에 한 맛의 한가로움 숨겼네 ⁵⁰⁾ |
| 川沙曲 | |

천사의 굵이에는 자하봉이 솟아 있고 東翠屏 아래에 월란대가 있으며⁵¹⁾

47) “先生 得地震明洞紫霞峰下 營室未畢 又遷于竹洞 又以洞陝隘 且無溪流 乃卜於溪上東巖” (『退溪先生年譜』 卷1, 「二十九年庚戌」)

48) “先生 五十歲 尙無家 初卜于霞峰 中移于竹洞 竟定于退溪之上”(『鶴峯先生文集續集』 卷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

49) 『廣瀨集』 卷8, 「雜著」, 〈紫霞山詩帖後識 [甲寅]〉

50)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六曲詩.

51) “萬月瀾僧舍在東翠屏下”(『退溪先生文集攷證』 卷1, 「詩」)

그 맞은편에 백운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월란대는, 『농암선생문집』에는 月瀾寺⁵²⁾로, 『퇴계선생문집』에는 月瀾僧舍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사찰이었다. 이가순이 이 굽이를 방문하였을 당시의 절은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없고 월란대가 자리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계는 월란대에 올라서 천사의 굽이를 조망하며 퇴계를 생각하였는데 이는 자하봉과 월란대 때문이었다. 하계는 도산구곡 제6곡에 이르러 긴 무지개가 맑은 물굽이를 둘러 있는 천사의 굽이에 위치한 월란대에서 멀리 백운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하봉 아래에서 만권의 책을 한가롭게 읽고 있는 유인을 생각하였다. 유인은 자하봉 아래에 집을 짓고 복거하려 했던 퇴계이고 하계가 있는 월란대는 퇴계가 시로 읊었던 대이다.⁵³⁾ 하계는 도산구곡 제6곡 천사곡에서 퇴계의 자취를 追想하며 구곡시를 지었다.

7) 제7곡 丹砂

도산구곡 제7곡은 丹砂이다. 도산면 遠村에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단사마을이 나온다. 마을 뒤에 붉은 점토질의 산맥이 뻗어있고 강가의 모래와 자갈도 연분홍빛이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丹’자와 ‘砂’자를 따서 마을 이름을 丹砂라 하였다. 이 마을 앞의 강변은 청량산에 들어가는 초입으로 지금은 도산면 온혜리에서 청량산까지 도로가 나 있지만, 그 옛날 선인들은 이곳에서 청량산 산행을 시작하였으니 그 길이 천사, 단사, 매내, 올미재, 가사리, 너분들, 청량산으로 이어졌다.

단사 마을이 있는 단천리는 구한말에는 예안군 의동면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에 면천리, 백운리, 향곡리, 단사리, 원촌동 일부를 병합하여

52) “黃公時寓月瀾寺 先生追思去年流觴之遊 寄詩二絕”(『龔巖先生年譜』 卷1, 「年譜」, 〈二十七年戊申〉)

53) 『退溪先生文集』 卷1, 「詩」, 〈寓月瀾僧舍書懷〉.

단사와 면천의 이름을 따서 단천리라 하고 도산면에 편입시켰다. 1976년 안동댐 건설로 마을의 일부가 수몰되었으며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할 때 안동시에 소속 되었다. 현재 이 마을은 단사, 항곡, 백운지, 면천 등 4개의 작은 마을로 구성되었으며 가구 수는 약 30호이다. 단사 마을은 단천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낙동강 상류의 맑은 여울이 마을을 안고 흐른다. 마을 앞에 깨끗한 자갈밭 백사장이 5리나 펼쳐 있으며, 강을 따라 길게 드리운 丹砂峽 절벽이 병풍을 이루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단사벽은 청량산 남쪽 산기슭이니 예안현 동쪽 20리에 있다. 석벽이 강에 임해 깎아지듯 서 있다.⁵⁴⁾

비스듬히 이어가서 단사벽에 이르면 푸른 산, 붉은 벼랑이 깎아지듯 천 길 높이 서고 푸른 강이 마을 안아 푸른 벽을 다하며 구름을 내고 물을 푸르게 하려 하니 마치 그림에 들어온 듯하다.⁵⁵⁾

단사협은 단사 마을 앞에 있는 약 1km에 이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퇴계가 단사협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단사협은 푸른 강물과 둘러있는 斷崖가 어우러져 천하의 기이한 경관을 펼쳐니 『선성지』에 예안의 14곡 중, 제7곡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예로부터 신선이 살고 있었다고 하며, 붉은 흙인 단사는 신선들의 식량이 되었다고 한다. 단사협 남쪽에는 王母山城이, 서쪽에는 葛仙臺, 高世臺가 있는데⁵⁶⁾ 퇴계는 갈선대, 고세대를 시로 읊은 바 있다.⁵⁷⁾

54) “丹砂壁 清涼南麓 在禮安縣東二十里 石壁臨江削立”(『吾家山誌』 卷1, 「山川臺庵集解第二」)

55) 『吾家山誌』, 「吾家山誌後識」.

56) “단사벽 남쪽에 왕모성산이 있다. 산이 서쪽으로 향하다 북쪽으로 처소를 안고서 두대를 두니 그 하나는 갈선대라 하고 그 하나는 고세대라 한다.〔丹砂壁南 有王母城山 山之西向而北 抱處有兩臺 其一曰葛仙 其一曰高世 〕”(『吾家山誌』 卷1)

| | |
|---------|--------------------------------------|
| 七曲仙臺印孔灘 | 칠곡이라 갈선대가 공탄에 비치니 |
| 雲靑水綠畫中看 | 푸른 구름 푸른 물이 그림 속에 보이네 |
| 伯陽眞訣留千古 | 백양의 진결이 천고에 남아 있으니 |
| 莫遣金丹鼎火寒 | 금단을 만드는 술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⁵⁸⁾ |
| 丹砂曲 | |

이가순은 도산구곡 제7곡에 이르러 갈선대가 여울에 비치고 푸른 구름 푸른 물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굽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신선이 붉은 흙을 식량으로 삼는다는 전설을 생각하며 백양의 진결이 천고에 남아 있는 이 굽이에 단사를 만드는 금단 술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였다. 하계는 단사의 굽이가 신선이 살 수 있는 청정한 공간이니 이러한 청정한 공간을 길이 지키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하계는 신선의 세계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단사의 전설을 사실로 믿으며 신선의 사상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사의 굽이가 신선이 살 정도로 청정한 공간임을 비유하기 위하여 백양의 진결과 금단의 술을 시에 끌어온 것이다. 그가 이 굽이를 청정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퇴계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후계 이이순의 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단사는 천사 북쪽 2, 3리에 있다. 선생의 「단사곡」 시에 “푸른 벽이 구름을 내려하고, 푸른 나무 그림에 드는 듯하네”라 하였고 또 “꽃이 도원의 경계에 피네”라 하였고 또 “가운데 만곡의 모래를 감추니 비밀스런 보배 하늘이 경계한 바네”라 하였다.⁵⁹⁾

후계는 단사의 굽이를 퇴계의 「단사곡」 시⁶⁰⁾를 인용하며 하늘이 숨겨 놓

57) 『退溪先生文集』 卷4, 「詩」, 〈葛仙臺〉〈高世臺〉.

58)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七曲詩.

59) “丹砂在川沙北二三里 先生 丹砂曲詩曰 靑壁欲生雲 綠樹如入畫 又曰 花發桃源界 又曰 中藏萬斛砂 秘寶天所戒”(『後溪集』 卷2, 「詩」,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

은 비경이라 하였다. 퇴계는 푸른 벽이 구름을 내고 푸른 나무가 그림에 드는 도원이 단사라 하였다. 실제로 단사의 굽이를 돌아보면 이러한 퇴계의 시가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 제8곡 孤山

도산구곡 제8곡은 고산(孤山)이다. 고산이 자리한 가송리는 매우 폐쇄적 형세를 띄고 있는 마을이다. 淸涼山 줄기가 마을을 둘러싸고 그 옆으로 낙동강이 흘러간다. 청량산의 臺 밑에 형성된 佳松峽은 안동의 수많은 명승지 가운데 山水美의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곳이다. 가송리는 강을 두고 동쪽에 가사리가, 서쪽에 소두들이 자리하고 소두들에서 남서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올미재가 있다.

가송리는 구한말에는 예안군 의동면에 속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통합 때에 가사리, 송오리, 고리, 광석동 일부, 운천동 일부, 봉화군 하남면 여울머리 일부를 병합하여 가사리와 송오리의 이름을 따서 가송리라 하고 안동군 도산면에 편입하였다.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이 통합되면서 안동시에 속하게 되었다. 가송리는 현재 고리재, 소두들, 가사리, 올미재 마을 등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구수는 약 70호이다.

고산은 가송리 소두들에서 강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산 하나가 홀로 떨어져 솟아 있는데 孤山 혹은 獨山이라 한다. 즉 孤山亭 맞은편에 있는 산이다.

고산은 축융봉 서쪽 산기슭이다. 『고증』에 “예안현 단사 북쪽 10리에 있는데 금씨의 장수지소가 있다.” 하였다. 세상에 전하길 “낙동강이 산을 안고 돌아 흐르는데 하루는 갑자기 크게 천둥이 치며 벼락이 떨어져 창애를 깨뜨리니 강물이 그

60) 『退溪先生文集』 卷1, 「詩」, 〈戲作七臺三曲詩〉.

사이를 흘러서 고산을 만들었다.” 하였다.⁶¹⁾

낙천 물은 황지에서 발원하여 남으로 흘러 장인봉 아래에 이르러 돌아 흘러 곡구를 지나는데 다듬잇돌 바위와 하얀 조약돌이 많아서 여울이 돌에 부딪혀 소리를 낸다. 축융봉 서쪽에 이르러 양안이 벽립해 마주 보고 석문을 만드니 고산이라 한다. 금씨의 구업이 있는데 물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질펀하다.⁶²⁾

고산은 축융봉 서쪽의 산기슭으로 단사에서 북쪽으로 10리에 있다. 琴蘭秀(1530~1604)의 藏修之所인데 전설에 의하면 낙동강이 산을 안고 돌아 흐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져 바위가 깨어지며 강물이 흐르면서 고산을 만들었다 한다. 이는 오랜 세월 낙동강물이 축융봉 산기슭을 흐르며 강에 임한 바위를 침식하여 고산이 떨어져 나간 자연 현상을 전설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고산을 지난 물은 크게 한 굽이를 만들며 흘러간다. 「오가산지후지」는 이러한 고산의 지형을 묘사하고 있다. “층층의 바위와 가파른 절벽이 허공에 아득하고 높다랗게 임하여 안개가 만든 시령과 구름이 이룬 이내가 푸르름에 젖고 어른어른 비치니 바라봄에 마치 바닷물이 하늘에 닿은 듯하며 죽순이 어지러이 나는 듯하며 고인이 한가로이 거니는 듯하니 황홀하여 형상할 수 없다.”⁶³⁾ 하였다. 고산 주변 형세는 낙동강 강물이 만든 지형이다. 층층의 바위와 가파른 절벽은 강물이 흐르면서 깎아 만든 단애이고 안개가 만든 시령과 구름이 이룬 이내는 축융봉 주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이다.

가송리 소두들에서 올미재로 내려가는 길목에 달이 밝게 비취 月明潭, 月

61) “孤山 祝融西麓 攷證云 在禮安縣丹砂北十里 有琴氏藏修 俗傳 洛江抱山回流 一日忽大雷震 劈破蒼崖 江流出其間 截作孤山”(『吾家山誌』 卷1, 「山川臺庵集解第二」)
 62) “洛川之水 發源於黃池 南流至丈人峯下 廻流過谷口 多礪巖白礫 湍瀨磕磕 至祝融峯西 兩岸壁立相對爲石門 曰孤山 有琴氏舊業 水至此益漫”(許穆 「清涼山記」, 〈陽川〉)
 63) “層巖峭壁 迥空臨危 烟棚雲嵐 積翠交暎 望之若溟濤漲天 若竹筍亂抽 若高人偃蹇 恍惚不可爲狀 由祝融西麓”(『吾家山誌』, 「吾家山誌後識」)

明沼, 月明塘이라 하는 못이 있다. 낙동강이 절벽에 부딪혀 깊은 소를 이루니 『선성지』의 예안 14곡 가운데 제4곡이 된다. 전설에 의하면 용이 깊은 못에 숨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심할 때, 고을 수령이 백성들을 위해 이곳에서 祈雨祭를 올리면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 | |
|---------|-----------------------------------|
| 八曲堅頑一斧開 | 팔곡이라 굳고 무딘 곳을 한 도끼로 여니 |
| 孤山孤絕石潭洄 | 고산이 빼어나고 석담 물이 돌아 가네 |
| 主人好是惺惺老 | 주인은 성성한 늙은이 좋아하니 |
| 見許眞工了會來 | 참된 공인 알고 옴을 허락 받았네 ⁶⁴⁾ |

孤山曲

이가순은 도산구곡 제8곡에 이르러 고산의 전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벼락이 떨어져 축융봉 기슭을 깨뜨려 고산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아니라 퇴계의 시구⁶⁵⁾를 인용하여 신이한 도끼로 완고한 축융봉 산줄기를 쪼아서 만들었다 하였다. 하계는 우뚝 솟은 고산과 물이 도는 석담을 바라보며 참된 공인이 찾아와서 이 굽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외에는 없었을 것이다.

9) 제9곡 淸涼

도산구곡 제9곡은 淸涼이다. 고산에서 물길을 따라서 거슬러 오르면 청량산 입구에 이른다.⁶⁶⁾ 청량교가 놓여 있고 강원도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강물이 흘러가는 이 굽이가 도산구곡 제9곡인 청량이다. 청량교 중간에 서서

64)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八曲詩.

65) “何年神斧破堅頑 壁立千尋跨玉灣 不有幽人來作主 孤山孤絕更誰攀”(『退溪先生文集』 卷1, 「詩」, 〈孤山見琴聞遠〉).

66) “淸涼在孤山北五六里 先生 武夷九曲圖跋曰 三十六洞天 無則已 有則武夷當爲之第一”(『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九曲詩 註)

위로 바라보면 오른쪽은 축융봉이, 왼쪽은 건지봉이 솟아 있고 그 사이를 낙동강 강물이 힘차게 흘러간다. 아래로 굽어보면 축융봉의 산발치를 따라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시야가 다하는 지점에서 한번 굽어 고산을 향하여 흘러간다. 이 굽이는 강물의 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빨라서 여름이면 봉화에서 보트를 탄 관광객이 이곳을 지나서 고산에 이른다. 이것은 무이산 계곡에 뗏목을 타고 무이구곡을 내려가는 것과 흡사하다.

이 굽이에서 조금 올라가면 퇴계가 머물렀던 淸涼精舍가 나오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淸涼寺가 나타난다. 퇴계는 일찍이 이 굽이에 이르러 청량산 유람을 마치고 청량정사에 머물며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인들이 이 굽이를 도산구곡의 극처로 설정하고 유람의 끝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 | |
|---------|---|
| 九曲淸涼更屹然 | 구곡이라 청량산 더욱 우뚝하니 |
| 祝融南下俯長川 | 축융봉이 남쪽 아래로 긴 내를 굽어보네 |
| 始知極處梯難上 | 비로소 극처는 사다리로 오르기 어려운 줄 아니 |
| 十二峯巒盡插天 | 열두 봉우리 모두 하늘 높이 솟았기 때문이네 ⁶⁷⁾ |
| 淸涼曲 | |

이가순은 청량에 이르러 우뚝 솟은 청량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축융봉이 남쪽 아래로 긴 내를 굽어보는 경관을 바라보며 도산구곡 極處를 생각하였다. 극처는 너무 높아 사다리로 오르기도 어려웠다. 청량산 열두 봉우리가 모두 하늘 높이 솟았기 때문이다. 극처는 유람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학문이 이르는 최고 경지이기도 하다. 조선조 士林에게 자연은 단순히 자연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연은 道가 내재된 존재였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도에 이르는 첩경으로 생각하였다. 하계 이가순은 도

67) 『霞溪集』 卷3, 「詩」, 〈陶山九曲〉 九曲詩.

산곡을 거슬러 오르며 퇴계의 遺蹟을 생각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선조를 추모함이 아니라 자연 속에 내재된 이치를 궁구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하계는 도산구곡 극처에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극처는 쉬 오를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에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진정한 극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⁶⁸⁾

4. 맺음말

도산구곡은 낙동강을 따라 운암에서 청량까지 약 45리에 걸쳐 설정되어 있는 구곡원림인데, 언제, 누가 설정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그 구곡의 지점도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필자는 문헌조사와 2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李頤淳의 「遊陶山九曲敬次武夷棹歌韻十首」와 并序, 李野淳의 「次武夷九曲棹歌韻十首」, 李家淳의 「陶山九曲」, 李宗休의 「擬陶山九曲用武夷權歌韻」, 趙述道の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琴詩述의 「謹次

68) 이종휴와 조동익은 각기 「擬陶山九曲用武夷權歌韻」에서, 별천지가 따로 없고 청량곡 이곳이 바로 별천지라고 토로하였다.

九曲清涼勢卓然 구곡이라 청량은 기세가 탁연하여
源頭昭曠視平川 원두는 밝고 트여 평천을 보겠네
吾家外圃知無遠 오가의 외포는 멀지 않은 줄 알겠고
六六山窮是別天 육육봉 다하니 바로 별천지일세(『下庵文集』 卷2, 「詩」, 「擬陶山九曲用武夷權歌韻」, 清涼)

九曲清涼眼豁然 구곡이라 청량은 눈이 활짝 트이니
上窮蒼壁下平川 끝없는 푸른 절벽 평천을 내려보네
已臻妙境難言處 묘한 경계 다하여 말하기 어려운 곳
不必重尋別一天 다시 별천지를 찾을 필요가 없네.(『晴溪集』 卷2, 「詩」, 「擬陶山九曲用武夷權歌韻」, 清涼曲)

廣瀨李丈陶山九曲韻, 崔東翼의 「擬陶山九曲用武夷權歌韻」, 『吾家山誌』 등을 대조, 분석하고 현지 답사와 고증을 통하여 고산구곡의 설정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도산구곡의 중심 지점은 1곡이 雲巖, 2곡이 月川, 3곡이 鰲潭, 4곡이 汾川, 5곡이 濯纓, 6곡이 川砂, 7곡이 丹砂, 8곡이 孤山, 9곡이 淸涼이라고 확정하였다.

도산구곡시는 이이순, 이아순, 이가순, 이종휴, 조술도, 금시술, 최동익 등이 창작하였다. 이 중, 이가순은 陶山九曲詩는 물론이고 退溪九曲詩, 玉山九曲詩, 源明九曲詩, 小白山九曲詩 등 5편의 구곡시를 창작한 구곡시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도산구곡의 지점 설정도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가순의 詩를 중심으로 陶山九曲詩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제1곡 雲巖曲에서는 퇴계가 김부필, 조목 등과 함께 운암사에 거닐면서 시를 짓고, 주역을 논하며 문장을 토론하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퇴계와 후조당 등 당시 도학자들의 학문을 높이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우의하였다.

제2곡 月川曲에서 하계는 월천 숲의 새를 보며 월천의 굽이를 단순히 혼탁한 속세의 공간이 아니라 人慾이 존재하지 않는 淸淨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퇴계가 여러 사람들과 월천정에서 더위를 피하고 풍월담에 배를 띄워 노닐었던 자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계는 시내에 가득한 풍월이 心賞을 함께 한다 하였다. 지금 시내 위에 비치는 달과 부는 바람은 퇴계가 함께 했던 달과 바람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다. 그리고 하계는 월천의 시내 산이 오랜 세월 막혔다고 하였는데 이는 월천 조목이 퇴계의 제자로서 큰일을 하였지만 퇴계의 학맥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제3곡 鰲潭曲에서는 후인들이 역동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역동서원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던 일을 생각하고 한 터럭의 더러움도 없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토로하였다. 이는 역동이 지향했던 경지이고 퇴계를 비롯한

후인들이 역동 선생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었고, 하계는 이 굽이에 이르러 한 치의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그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부귀가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비치는 달이 어여쁘게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지였다.

제4곡 龔巖曲은, 벼슬에 나아가 자신의 포부를 펼친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분천의 해오라기와 벗을 하며 강호의 한가로운 삶을 살았던 농암 이현보를 추상하고 하계는 분천의 굽이에서 「어부가」를 읊으며 살았던 농암의 풍류, 假漁翁의 삶을 누리고 싶은 심정을 표출하였다.

제5곡 濯纓潭曲에서는 물이 불어나면 물에 잠기고 낮아지면 드러나는 반타석과 남쪽에 간방의 뗏부리가 구름 숲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퇴계의 자취를 통하여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읊었다. 그리고 그는 퇴계가 읊은 탁영담 시구를 들어서 자신이 선조 퇴계 이황의 학문을 잇겠다는 다짐을 은연중 드러내었다.

제6곡 川沙曲에서 하계는 긴 무지개가 맑은 물굽이를 둘러 있는 천사에 위치한 월란대에서 멀리 백운관을 바라보았고 자하봉 아래에서 만권의 책을 한가롭게 읽고 있는 유인을 생각하였다. 유인은 자하봉 아래에 집을 짓고 복거하려 했던 퇴계이고 하계가 있는 월란대는 퇴계가 시로 읊었던 대인데 여기에서 퇴계의 자취를 밟으며 상념에 잠겨있는 자신을 그렸다.

제7곡 丹砂曲에서 하계는 단사의 굽이가 신선이 살 수 있는 청정한 공간이니 이러한 청정한 공간을 길이 지키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단사의 전설을 사실로 믿으며 신선의 사상에 심취한 것은 아니었다. 단사의 굽이가 신선이 살 정도로 청정한 공간임을 비유하기 위하여 백양의 진결과 금단의 술을 시에 끌어온 것인데 이 굽이를 청정한 공간으로 생각한 것은 퇴계

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제8곡 孤山曲에서 하계는 퇴계의 시구를 인용하여 신이한 도끼로 완고한 축융봉 산줄기를 쪼아서 고산을 만들었다 하고 우뚝 솟은 고산과 물이 도는 석담을 바라보며 참된 공인이 찾아와서 이 굽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典故를 통하여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설명함으로써 성동격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9곡 淸涼곡에서 이가순은 청량에 이르러 우뚝 솟은 청량산을 바라보았고 축융봉이 남쪽 아래로 긴 내를 굽어보는 경관을 바라보며 도산구곡 極處를 생각하였다. 청량산 열두 봉우리가 하늘 높이 솟았기 때문에 극치는 너무 높아 사다리로 오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극치는 유람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하고 학문이 이르는 최고 경지이기도 하다. 이가순은 도산구곡을 거슬러 오르며 퇴계의 遺蹟을 생각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선조를 추모함이 아니라 자연 속에 내재된 이치를 궁구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하계는 도산구곡 극처에 이르렀지만 여기에서 극치는 쉬 오를 수 없는 경지이고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정한 극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노래하였다.

이와 같이 이가순은 도산구곡의 경물을 완상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흥취에 의탁하여 도학의 뜻을 드러내었으니 이가순의 도산구곡시는 이른바 탁흥우의의 구곡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琴詩述, 梅村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家淳, 霞溪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晚興, 吾家山誌, 國立中央圖書館本.
李野淳, 廣瀨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頤淳, 後溪集, 國立中央圖書館本.
李宗休, 下庵集, 韓國國學振興院本.
李賢輔, 龔巖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9-31, 民族文化推進黨, 1988.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1, 民族文化推進黨, 1988.
趙翼, 浦渚集, 韓國文集叢刊 85, 民族文化推進黨, 1988.
趙述道, 晚谷集, 國立中央圖書館本.
崔東翼, 晴溪集, 國立中央圖書館本.

2. 저서 및 논문

- 姜正瑞, “九曲歌系 詩歌에 나타난 空間이미지와 志向意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권정은, “樓亭歌辭의 空間인식과 미적 체험”, 한국시가연구 13, 한국시가학회, 2003.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학회, 1991.
_____, “玉所 權燮의 九曲歌系 詩歌 연구”, 晴峯崔台鎬博士華甲紀念論叢, 2000.
_____, 聞慶地方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9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4.
_____, 聞慶의 九曲園林과 九曲詩歌, 한국학술정보(주), 2005.
_____, 退溪九曲과 退溪九曲詩 연구,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42집,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김성룡, “고려 중기 樓亭文學의 형성과 山水美 발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0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출판부, 2000.

- 안장리, 韓國 八景詩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 俞俊英, “九曲圖의 發生과 機能에 대하여”, 고고미술 151호, 한국미술사학회, 1981.
- _____, “조형예술과 성리학”, 도원 유승국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83.
- 尹軫暎, 朝鮮時代 九曲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1997.
- 이민홍, ‘朝鮮朝 朱子學的 知識人의 江湖에 대한 認識’, 開新語文研究 3, 忠北大 開新語文研究會, 1984.
- 李敏弘, 士林派文學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5.
-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 李佑成, 陶山書院, 한길사, 2001.
- 李殷昌, “韓國儒家傳統園林의 研究”, 한국전통문화연구 4, 효성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8.
-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造景構造의 解釋에 관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9.

Abstract

A Study on Dosangugok(陶山九曲) and Dosangugok Poems

Kim, Mun-Kie

Based on two phases of academic survey about Dosangugok(陶山九曲) grove in Aug. 2007 and May 2008, this study sought to ascertain historical evidences of each position distributed within Dosangugok by investigating related literatures such as Ogasanji(吾家山誌) and Dosangugok poems(陶山九曲詩) written by 6 co-authors including Lee Ga-sun, and thereby sought to analyze and examine poetic world of Dosangugok poems, especially that written by Lee Ga-sun.

Dosangugok is a meandered grove whose section is set from Unam(雲巖) to Cheongryang(淸涼) (total distance : about 18km) along the Nakdong River, but there was nothing known about when and who set the region of Dosangugok. Besides, there were undefined sections of such meandered grove.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 and two phases of academic survey, it was found that Dosangugok was completely set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central positions of Dosangugok comprised total 9 curves: Unam(Curve 1), Wolcheon(Curve 2), Odam(Curve 3), Buncheon(Curve 4), Tagyeong(Curve 5), Cheonsa(Curve 6), Dansa(Curve 7), Gosan(Curve 8) and Cheongryang(Curve 9).

Dosangugok poems were originally created by Lee Yi-sun(李頤淳), Lee Ya-sun(李野淳), Lee Ga-sun(李家淳), et al.. In particular, Lee Ga-sun authored 5 pieces of Gugok poetry including Dosangugok poems so that he was recognized as the maestro of Gugok poetry, and set each sectional position of Dosangugok more correctly than anyone else who authored Dosangugok poems. So this study focused primarily on analyzing poetry of Dosangugok written by Lee Ga-sun.

While appreciating scenery and natural features of Dosangugok, Lee relied on his inner gusto to reveal his intentions of Confucian philosophy.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his Dosangugok is a Gugok poetry of Takheung Woowi(托興寓意) to reveal hidden intentions by

relying on metaphor of natural phenomena.

Key Word

Dosangugok, Dosangugok poems, Toegyegugok, Toegyegugok poems, Lee Yi-sun, Lee Ya-sun, Lee Ga-sun, Takheung Woowi, Unam, Cheongryang

- 논문투고일 : 2008.6.30. 심사시작일 : 2008.7.14. 심사완료일 : 2008.7.25.